부산불교聯, 천진불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기 출범

전통등 제작 등 불교문화체험
부산연등회 호기놀이 참여 등
대불청 부산지구 봉사 후원해
부산연등회 일정변경 등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4월 2일 천태종 삼광사 경내 강의실에서 불교문화 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부산연등축제 행렬등(燈) 만들기'를 개최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부산불교연합회가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불교 대표 문화 활동에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불교문화 체험을 돕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3월 각 사찰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재문화 문화전승단 제1기 초등학생 50명을 선발(선착순)했다. 제1기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행렬등 제작,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참가 등 부처님오신날의 행사들을 체험하며 불교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특히 이번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부산연등회에서는 전통놀이인 호기놀이를 시연한다. 호기놀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당시 어린이들이 깃발을 들고 마을을 돌며 연등 제작을 위한 모금을 했던 놀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문헌에 따라 호기놀이를 재현해 선재문화 전승단 어린이들과 대중에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이번 호기놀이 시연을 위해 직접 등을 만들고 연등회를 준비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2022년 팔관회 사회나눔, 수계법회 참여 등 1년 동안 불교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한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3만 원 참가비 외 교육 및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활동 우수 어린이는 불교계 장학금 추천을 받고 연등회 행렬등, 법복, 수계증서 등을 제공받는다.


부산불교연합회가 4월 2일 삼광사 강의실에서 불교 문화 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부산연등축제 행렬등(燈)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렬등 제작에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과 보호자를 비롯해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및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들이 동참했다.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들은 행렬등 제작을 위해 한 달 동안 전주를 방문해 전통등 제작을 배웠으며 어린이가 하기 힘든 철골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봉사에 동참한 봉사자들은 대불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재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이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행렬등 제작뿐 아니라 연등회 행렬과 템플스테이, 팔관회 등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년 동안의 활동 과정 전체를 관리한다.

김진희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 포교에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대불청 부산지구는 문화재 해설사 과정을 운영 중인데, 과정을 수료해도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을 도와주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이라며 불교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옥나경(초1) 학생은 "처음으로 만들어보았는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민숙(43) 보호자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전통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와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며 "이런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직접 경험하며 우리 불교문화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5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566 부산연등축제 제1차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던 연등회와 달라진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코스' 등을 공개했다.

부산연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연등회는 4월 22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에서 개최한다. 부산연등회는 부산연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형장엄등 점등식 행사였지만 올해는 영산재, 느티떡 나누기, 호기놀이, 봉축연합대법회를 포함해 주요 행사로 진행한다.

4월 30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봉축연합대법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략하고 소규모 연희단을 구성해 연등행렬만 진행한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 에코브릿지에서 출발해 교육청을 지나 하마정 교차로, 양정교차로,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한다. 과거 연등행렬 회향은 참가팀이 개인별로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송상현 광장에서 난타공연, 내빈 인사말 등으로 회향식을 진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운 스님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이다"며 "주요 행사를 변경했지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부산시민에게 차별화된 불교문화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연등문화제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불교사암聯, 통영 보건소 햄버거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4월 4일 통영보건소를 방문해 햄버거 200인분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 보현사 주지 묵원 스님,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 연화사 주지 도법 스님이 동참했다.

회장 종묵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통영 불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전하고자 방문했다"며 "코로나 감염병이 하루 빨리 퇴치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보건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보건소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2566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

4월 5~7일, 장학금 수여 및 성만패 증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내 설법전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은 전계사 혜남 스님이 전계아사리,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갈마아사리,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담당했으며 천진, 명신, 중선, 향조, 법선, 증도, 덕문 스님이 존증아사리 칠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마지막 회향 법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문 스님이 동참해 참석한 대중을 격려했다.

통도사는 수계의식 전에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성주 스님과 통도사승가대학 정혜 스님을 비롯한 39명의 스님에게 장학금 318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10회 이상 보살계에 참여한 대중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살계 45회 성만패는 황정련(대원심), 35회 성만패는 박수연(관음화), 25회 성만패는 정덕자(지성월), 홍화순(무량심), 이복림(여래성)에게 수여했으며 20회 수계자 6명과 15회 수계자 18명, 10회 수계자 24명에게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한편, 통도사는 4월 7일 보살계 회향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번역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운주사) 출판 봉정식을 진행했다.

수진 스님이 완역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는 현재 30권이 출판됐으며 앞으로 총 100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권보성 신도회장 취임

4월 1일 취임식"…젊고 활기찬 불교 문화 이끌 것"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4월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1대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권보성 회장(47)은 '미래 세대에 어울리는 불교문화'를 강조했다. 권 회장은 "해동용궁사가 조계종 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한 이후 신행과 나눔으로 지역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해동용궁사의 신도회장이라는 역할이 더할 수 없이 중대하게 느껴지며 믿고 맡겨주신 주지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사찰의 신도회장 가운데 제가 아주 젊은 편에 속한다. 미래 세대에 어울리는 불교문화를 제시하고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보성 신도회장은 불자향토기업인으로 불교용품기업 선행(善行)을 이끌고 있다. 특히 사찰에서 사용하는 양초를 12지 양초, 통일대불양초 등 사찰 특색에 맞게 제작해 포교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4월 6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해동용궁사는 기장시니어클럽에 500kg, 일광노인복지관에 500kg, 부산구포 진여원에 500kg,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에 500kg, 총 2000kg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청소년 포교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관음사, 산신불 점안 및 쌀 전달

4월 3일, 자비의 쌀 가야 3동에 전달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가 4월 3일 경내 대웅전 옆 마당에서 '산신불 점안법회 및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눔식'을 봉행했다.

관음사는 이번 산신불 점안법회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80kg을 가야3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점안법회는 불공으로 시작해 기념사 및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천웅 스님을 비롯해 전등사 주지 도문 스님(前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사무국장 대각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천웅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불보살이다. 관음사에 와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신이 산을 지키며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관음사는 불보살의 가피가 이곳 부산진구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증명법주 도문 스님은 "주지 천웅 스님이 오신 이래로 관음사가 밝게 변모하고 생동감이 넘친다"며 "삶이란 휘면서 자라는 소나무처럼 휘청거리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관음사를 찾는 여러 불자들은 오늘 점안한 산신불을 친견하면서 힘들 때마다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말씀

불교문화는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이래로 한국불교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울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불교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모든 불교 의례중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이며 등상불이 불복장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으로 화현했을 때 불공의식 예수재 수륙재 시식 제불공 및 범패 태징 바라 나비춤 법고춤 살풀이 화관무 진도 씻김굿등 민속문화까지 모든 의례 의식이 구현되었다.

특히 불복장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러내는 과정을 조상경에서 밝혔는데 용허스님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화악스님이 경전과 제방 선지식을 통하여 고증해서 완성한것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본이다 화악스님의 교판에 의하면 조상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문(四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첫째 신(信): 등상불을 살아 계시는 부처님으로 철저히 믿을 것
둘째 해(解): 복장에 들어갈 250여 가지의 물품을 왜 넣어야 하는지 각각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의식할때의 마음가짐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셋째 행(行): 삽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각종 진언을 지송할 때 사부대중이 동심 일체가 되어 모두 금강신으로 들어가 작법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 정진이며
넷째 증(證): 조성불을 화현불로 탄생시키는 의식 즉 점안작법 점필법이 있다.

이상의 개괄적 설명과 같이 근본 부처님을 완성하는 의식 작법이야 말로 모든 의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의식 작법은 불교 전체 불교인의 불교문화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증명: 활안정섭(서울 금강선원 총재)
범청상명(선암사 전 주지 및 현 선원장)
의식 법주 겸 강주: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수진 (무형문화재 제 139호)

- 아 래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분 대 환영)
개강일시: 2022년 양 5월 12일(음 4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3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모집인원: ○○○명
수 강 료: 1개월에 20만원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 www.dyhs. 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및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접 수: 수시모집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 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연락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 061-381-2683 팩스: 381-2749
e-mail: hb480806@hanmail.net
전통불복장 사무국장 국진 010-5048-7782